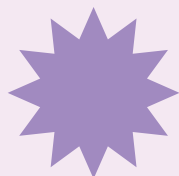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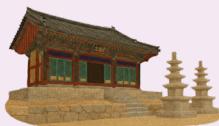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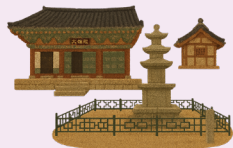


충청북도

마음쉬는 길



세계로 걷다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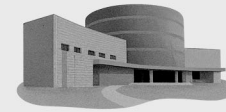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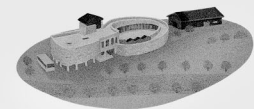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

마음쉬는 길



세계로 걷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Contents



PART 01

충청북도 어울리길이란?



PART 02

불교가 궁금해요!



PART 03

마음쉬는 길을 함께 걸어요!

마음쉬는 길을 떠나기 전에!



정해진 시간도, 짜여진 일정도 없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탐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에는 **각 장소의 개방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따라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이때에는 **조용히 주변을 관람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을 찾으실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피해주세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내문과 현장 지침을 확인한 뒤
조용히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종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내책자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책자 **상단의 QR코드를 활용**해
장소별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 이어폰을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각 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쉬는 길을 걸으신다면, 이 여정이 더욱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PART 01 어울리길이란?



홍보영상QR



어울리길 소개

어울리길, 함께 걷는 평화의 여정

충청북도는 오래전부터 백제·고구려·신라가 맞닿던 자리이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라는 독자적인 빛깔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종교문화유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서로 다른 종교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며 공존해 왔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바램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길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어울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만나 하나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영감을 얻어,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는 만남의 길,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희망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선 화합의 가치를 새기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길 전체코스



PART 02 불교가 궁금해요!



불교란 무엇일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이 말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외는 염불입니다. 그 뜻은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비로운 부처님께 기대어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는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자 싯다르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싯다르타는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慈悲)’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慈)’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悲)’는 고통받는 존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차별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 법구경(法句經)

이 구절은 불교 자비 사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작은 마음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일상에서 가족, 친구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자비 실천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解脫)’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통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열반(涅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菩薩道)’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돕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의 불교

불교는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국을 거쳐 4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이후 1,600여 년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꽃피우며 우리나라만의 불교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는 한국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불교가 깊게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을마다 사찰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불교 예술, 수행 전통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법주사에는 다양한 불교유산이 조화를 이루며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 남아 있고, 옥천 용암사에서는 새벽 해가 산허리를 밝히며 떠오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과 문화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보은 법주사가 그중 하나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암사의 일출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의 사찰과 불교문화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자비와 지혜, 평화와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는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 마음을 쉬어가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경전 속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는 충북 불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마음 쉬는 길, 세계로 걷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PART 03 마음쉬는 길을 함께 걸어요!

충북의 고요한 산사와 자연 속을 거닐며, 걷는 이마다 마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숲과 바위,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잠시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길 위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이 펼쳐져, 불교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온전히 체험하게 합니다.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스며든 지혜와 수행의 흔적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음 쉬는 길'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롭다"- 열반경(涅槃經)



마음쉬는 길, 세계로 걷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주 소 :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20

개방시간 : 하절기 10:00 ~ 17:00 / 동절기 10:00 ~ 14: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 추석)

문의사항 : 043-533-7965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속리산 자락의 법주사에 자리한 사립박물관으로 2024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보 3건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지정유산을 간직한 법주사는 오래전부터 우리 불교문화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더 많은 사람이 법주사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수장고와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보물 ‘보은 법주사 동종’과 ‘보은 법주사 괘불탱’을 비롯하여 ‘보은 법주사 신법천 문도 병풍’, ‘보은 법주사 가경구년명동종’ 등 30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주사의 창건 설화와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설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둘러본 뒤 법주사를 찾는다면, 법주사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와 깊은 불교문화를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 세조길



법주사 성보박물관을 나서면 매표소에서 세심정 갈림길까지 약 3.2km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세조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와 법주사의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64년 2월, 세조는 500여 명의 수행원과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세조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법주사를 찾은 이유는 심한 피부병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조카 단종(端宗, 재위 1452~1455)을 폐위하고 많은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조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깊었습니다.

세조는 법주사의 말사인 복천암에 머물던 신미대사(信眉大師)를 찾아가 치유를 구하자, 신미대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전하의 병은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작은 웅덩이에서 몸을 씻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세조는 신미대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복천암 주위의 작은 웅덩이에서 목욕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조의 피부병이 크게 호전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조가 찾았던 이 치유의 길을 거닐며, 바쁜 일상에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얻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은 법주사 | 사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 소 :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개방시간 : 하절기 4:00 ~ 20:00 / 동절기 5:00 ~ 20:00 (입장마감 18:00)

문의사항 : 043-543-3615



보은 법주사(報恩 法住寺)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자리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법주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553년 승려 의신조사(義信祖師)의 창건설화입니다. 인도에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의신조사는 흰 나귀에 불경을 가득 싣고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속리산 자락에 이르렀을 때, 순순히 따라오던 흰 나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신조사가 주변을 살펴보니,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에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이 머물 만한 곳이구나!"

의신조사는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절'이라는 의미를 담아 '법주사(法住寺)'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776년(혜공왕 12), 진표(眞表)와 그의 제자 영심(永深)이 법주사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주사에 남아 있는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이 시기 건립을 뒷받침합니다.

법주사는 임진왜란으로 많은 전각과 유물이 불타 사라졌지만, 이후 여러 차례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법주사는 천년 넘게 불법이 이어져 온 성지이자, 우리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스님들은 왜 회색 옷을 입나요?

A.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袈裟)'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의 가사는 주로 회색인데, 이는 '소욕지족(少慾知足)', 즉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회색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색깔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수행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염색이 쉽고 관리가 편리한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Q. 사찰에서 보이는 만(卍)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A. 만자(卍)는 불교를 대표하는 기호입니다. 원래는 산스크리트어 '스바스티카(swastika)'에서 비롯된 것으로, '길상(吉祥)'과 '영원', '번영'을 뜻합니다. 만자의 네갈래 모양은 자비, 지혜, 방편, 평등의 네 가지 덕목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가슴이나 손바닥, 사찰 건물의 장식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불교 신앙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7곳의 사찰을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보은 법주사를 비롯하여 공주 마곡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가 포함됩니다. 이 사찰들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수행과 불교 활동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대부분 산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한 사찰 배치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산사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정신이 잘 드러나며, 사찰 곳곳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평화와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공주 마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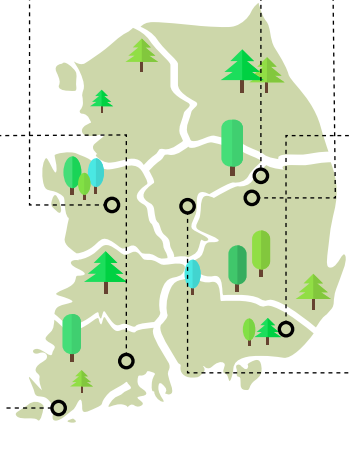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보은 법주사

- 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팔상전



팔상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탑입니다. 높이가 21m에 이르는 5층 목탑으로, 현재 남아 있는 탑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팔상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605년 사명대사(泗溟大師)가 다시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목조탑으로서, 불교미술과 건축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상전 안에는 '팔상도(八相圖)'가 모셔져 있습니다. 팔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한 그림입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태어남, 출가와 수행, 깨달음, 첫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봉안하고 있어 이 전각을 '팔상전(捌相殿)'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팔상도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처님이 천상 세계인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보여줍니다.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그의 삶이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인도의 왕자였던 부처님이 왕궁을 나와 사방을 거닐며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은 삶의 고통과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설산에서 어려운 수행을 하며 마음과 몸을 닦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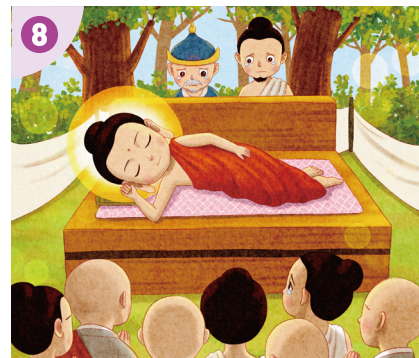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내고 마음을 정화하셨습니다.

7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인간들에게 법을 전하고, 가르침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8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부처님이 사라쌍수 아래에서 육신의 삶 마치고 열반에 드신 장면으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쌍사자석등



팔상전에서 나와 대웅보전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르면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석등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쌍사자석등’입니다. 석등은 원래 사찰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이지만,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는 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은은하게 번지는 빛은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법주사의 쌍사자석등은 다른 석등과는 달리, 등잔을 올리는 감실을 길쭉한 돌기둥 대신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배를 맞대고 서서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며, 현재 남아있는 사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자세히 보면 한 마리 사자는 입을 벌리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입을 벌린 사자는 염불과 경학을 하는 스님을, 입을 다문 사자는 좌선을 하는 스님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는 쌍사자석등은 단순한 석조물이 아니라, 지혜와 수행의 길을 비추는 상징적 등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



법주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팔상전이지만, 사찰의 중심 건물은 대웅보전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던 것을 1624년(인조 2)에 다시 지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2층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이 독특한 형식 때문에 충남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3대 불전이라 불립니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기린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는 흠을 구워 만든 불상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신불(三身佛)’이 모셔져 있습니다. 세 분의 부처님은 모두 비슷한 모습이지만, 손 모양을 보고 어떤 부처님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처님은 깨달음과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 왼쪽의 부처님은 극락세계의 주인인 아미타불, 오른쪽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 석가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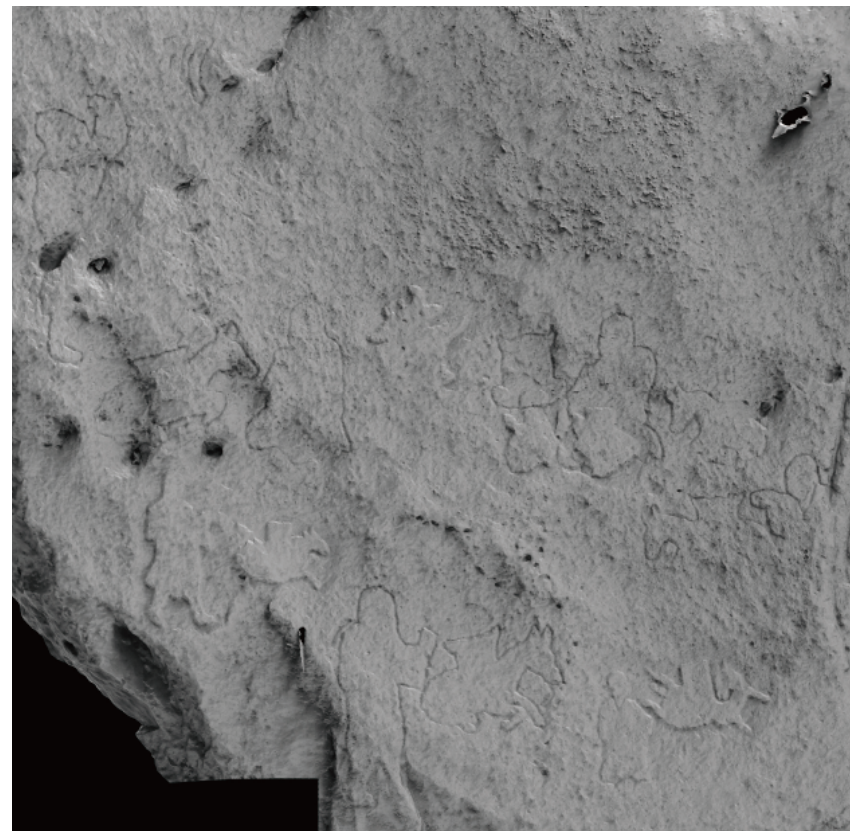
웅장한 건물과 장엄한 불상은 법주사의 깊은 역사와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주사 경내로 들어서서 금강문을 지나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향하면 '마애여래의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이 거대한 마애불은 법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상입니다.

'마애불(磨崖佛)'이란 바위에 새긴 부처님을 뜻하고, '의좌상(倚坐像)'은 의자에 걸터앉은 듯한 자세를 말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연꽃의 잎 위에 발을 올리고 편안히 기대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자세가 아닌, 자연스럽게 앉은 듯한 이 자세는 법주사 마애불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불상의 오른쪽 바위에는 희미하지만, 경전을 실은 나귀와 함께 이를 끄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의신조사의 창건 설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불교의 전래와 법주사의 시작을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바위에 새겨져 오늘에 이른 마애여래의좌상은 법주사의 깊은 역사와 불교 신앙의 상징으로 지금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Q.** 절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A.** 향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듯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부처님께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향의 은은한 향기는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여 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은 속리정어품송 | 천연기념물

주 소 :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99



보은 속리 정어품송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정어품송'이라는 커다란 소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약 600년 동안 살아온 이 나무는 높이가 14.5m에 달하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464년(세조 10), 세조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법주사를 찾던 길에 세조의 가마가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세조의 가마가 무사히 지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이한 일에 감동한 세조는 이 소나무에게 현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2품의 벼슬을 내렸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정어품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어품송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역사와 전설을 함께 품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모양이 아름답고 오래 살아온 만큼 생물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태풍으로 가지가 많이 부러져 예전의 장엄한 모습은 잃었지만, 정어품송은 여전히 법주사의 입구를 지키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주요 행사



부처님 오신날(생명 존중의 축제)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님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각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을 비롯해 연등 점등식, 어린이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핵심 가르침은 '생명 존중'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되새기며,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연등회(세계인이 함께하는 빛의 축제)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교 행사입니다.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연등에는 '지혜의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밝힌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게 거리를 밝히는 형형색색의 연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충북 지역의 사찰들 역시 연등회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템플스테이(마음을 치유하는 사찰 체험)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의 법주사, 용암사 등 여러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벽 예불, 참선, 사찰 음식, 차담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요한 사찰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은 농경문화관



농경문화관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655-3

개방시간 : 하절기 9:00 ~ 18:00 / 동절기 9:00 ~ 17:00 (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명절 연휴)

문의사항 : 043-544-7300



보은 농경문화관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전통 농경문화를 한눈에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농경문화관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로비, 2층은 전시실과 광장, 3층은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보은의 역사와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농경문화관 옆에는 대장간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 농경시대에 사용되던 농기구나 철로 만든 도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의 전통 '호미' 역시 이러한 대장간 기술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전통 기술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소중한 유산으로, 이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야장' 보유자 유동렬 선생님이 진행하는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장(冶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장이'를 뜻하며, 망치나 집게 같은 도구를 이용해 철을 달구고 두드려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이 있기에, 우리는 대장간에서 철을 다루는 생생한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며, 소중한 농경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이거나 그곳은 즐겁다”- 법구경

! 여기서 잠깐!

Q. 절에서 목탁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목탁은 나무로 만든 타악기로, 예불이나 독경을 할 때 리듬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산만한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탁의 유래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도 전해집니다. 옛날 한 스님이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물고기로 환생했는데, 죽은 뒤에는 자신이 다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꾸짖어 달라는 뜻에서 “나를 목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탁은 물고기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수행자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옥천 용암사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400
 개방시간 : 하절기 8:00 ~ 18:00 / 동절기 9:00 ~ 18:00
 문의사항 : 043-732-1400



옥천군 장령산 자락에는 용암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이름은 커다란 바위가 마치 용이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아 붙여졌다고 하지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眞興王, 540~576) 때 의신조사가 세웠다고 합니다.

용암사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새벽에 피어오르는 ‘운무(雲霧)’와 붉게 떠오르는 ‘일출’은 장관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러 찾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덕분에 용암사는 미국 CNN이 뽑은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용암사는 역사적인 가치를 넘어 자연 속 쉼터이기도 합니다. 구름과 햇살이 어우러진 장령산 풍경 속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용암사 북쪽의 낮은 봉우리에 가면 동·서 삼층석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탑은 크기도, 모양도 거의 똑같아 2층의 받침대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삼층석탑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탑들이 세워진 위치는 일반적인 사찰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탑은 대웅전 앞에 자리하지만, 용암사의 탑은 절을 바라보는 북쪽 봉우리 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세가 열려 기운이 흩어진다고 여겨진 곳에 탑을 세워 부족한 기운을 막고, 사찰을 보호하려 한 것이지요.

또한 자연 암반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단부를 정성껏 2층으로 다듬어 올렸다는 점이 눈길을 끄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석탑들이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 오르면 석탑과 함께 용암사 전경은 물론, 멀리 옥천 시내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동·서 삼층석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신앙과 자연을 바라보는 안목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용암사 마애여래입상은 용암사 뒤편의 큰 암벽에 새겨진, 약 천 년 전에 조성된 불상입니다. 높이는 3m로, 불상 위쪽으로 자연 바위가 마치 지붕처럼 남아있어 비바람으로부터 마애불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듯합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옷 주름이 유려하게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색을 입혔던 흔적도 남아있어, 옛 불교 조각의 생생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애불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집니다. 신라가 멸망하던 시기,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향하던 길에 이곳에 잠시 들러 남쪽 신라의 옛 수도를 바라보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애불을 바라보면, 천 년 전 사람들의 신앙과 슬픔,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영동 영국사

주 소 :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개방시간 : 5:00~19:00 (일몰 이후 입장 금지)

문의사항 : 043-743-8843



영동 영국사



영국사는 668년(문무왕 8)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원각국사 덕소(圓覺國師 德素, 1119~1174)가 절을 크게 중창 하였고 고종(高宗, 1213~1259)의 지시로 절을 다시 지어 이름을 '국청사'라 하였습니다. 이후 공민왕(恭愍王, 1351~1374)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하였는데, 이때 공민왕은 이곳에서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덕분에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하여 이후 절 이름을 '영국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사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절에는 1,000살이 넘는다고 알려진 은행나무를 비롯해, 원각국사의 공덕을 기리는 원각국사비, 승려의 유골을 모신 승탑, 고려시대에 세워진 삼층석탑 등 많은 국가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찾으면 고려시대 불교의 숨결과 원각국사의 지혜, 그리고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 깊이 남습니다.



영국사 은행나무



영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는 약 1,000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고려시대에 심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그 크기와 형태에서 역사적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국사 은행나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주변의 국가유산과 함께 어우러져 영국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 없는 이 나무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고요한 평안과 자연의 위로를 전합니다.



영국사 원각국사비와 승탑



'원각국사비'는 대웅전 남쪽 약 150m 떨어진 낮은 언덕에 자리한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원각국사 덕소로, 어린 시절 천태종(天台宗)으로 출가해 뛰어난 수행력과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원각국사는 고려시대 임금의 스승인 '왕사(王師)'에 오르고, 사후에는 국사(國師) 자리까지 오른 첫 번째 승려이기도 합니다.

원각국사는 12세기 고려 명종 때 영국사를 크게 중창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곳을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 1055~1101)의 천태종을 계승하는 중요한 도량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동암·서암·북암을 새로 지어 수행 공간을 넓히고, 많은 승려가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원각국사가 입적한 후, 고종은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영국사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은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인 귀부(龜趺) 위에 몸체를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전형적인 고려시대 비석입니다. 전체 높이는 약 3.2m이며, 현재는 최근 건립한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비문을 통해, 원각국사비가 1180년(명종 10)에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은 단순한 추모비가 아니라, 당시 불교계 상황과 원각국사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한 귀중한 사료입니다.



국가유산청 제공

현재 영국사에는 원각국사비와 함께 고려시대 구형 승탑(보물)이 남아있어, 원각국사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탑(僧塔)’은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 둔 묘탑(墓塔)을 말합니다. 이 승탑은 높이 약 1.74m로, 안정감 있는 8각형 구조입니다. 기단부의 8각 면마다 무늬를 조각해 넣었으며, 탑신 한 면에는 직사각형 문짝과 자물쇠 모양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승탑의 형태와 조각 양식을 볼 때 이 승탑은 12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승탑의 주인공이 원각국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각국사비와 승탑을 바라보면, 영국사를 중창하고 많은 승려를 가르치며 수행 도량을 일군 원각국사의 지혜와 따스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 여기서 잠깐!

Q. 불교는 윤회를 믿는데,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나요?

A. ‘윤회(輪廻)’는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죽은 뒤에도 ‘업(業)’에 따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윤회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행동과 깊이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동, 즉 선업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행동, 즉 악업을 하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회가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윤회 사상은 지금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영국사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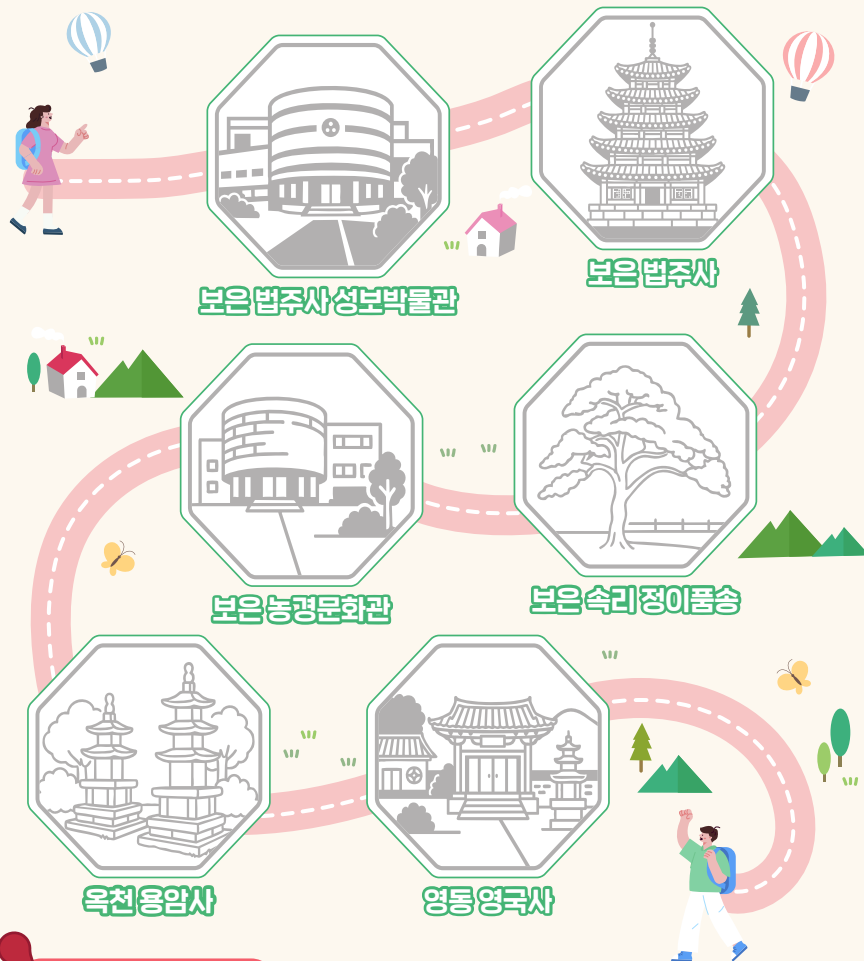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한 영국사 삼층석탑은 원래 옛 절터에 흩어져 있던 부재들을 1934년에 주봉조사(朱奉祖師)가 영국사를 다시 지을 때 옮겨 세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2005년 석탑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각 부재가 원래의 형태와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934년에 이 석탑이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재조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석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고 머리 장식을 갖춘 전형적인 삼층석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단의 네 면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위층 기단의 무늬가 모서리까지 빠져나오는 특징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양식으로, 이를 통해 영국사 삼층석탑이 9세기 경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탑은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 머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마음쉬는 길 스탬프 투어



스탬프 찍는 방법

- 처음 방문한 장소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챙겨 스탬프를 찍어요.
- 마음쉬는 길 스탬프를 3곳 이상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려요(선착순 증정).
- 기념품 수령 장소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기념품 수령 장소

어울리길을 소개합니다!

공감의 길 다름을 견고 마음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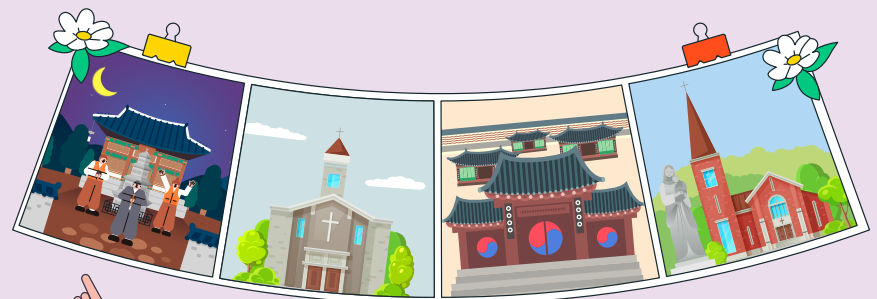
서로 다른 종교문화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 속에서 발견한 공통된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은총의 길 기억의 발걸음

충북의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잇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깃든 공간을 걸으며 순교자들의 믿음을 되새기고,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 벽돌 위에 새긴 마음

충북의 근대 개신교 건축유산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양식 건축물과 선교자들의 발자취 속에서 근대문화의 의미와 신앙을 실천했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울리길 홈페이지(<http://www.cbrp.co.kr>)"에서 추억을 함께 나누어요!



홈페이지 QR

집필자

석중스님(보은 법주사 재무국장)

신경식(충북불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나익영(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소연(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이지오(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이수영(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마음쉬는 길 - 세계로 건다

발행일 2025. 10.

발행처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전화 043-279-5400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디자인 디자인신화

인쇄 소문인쇄사

저작권자 ©충청북도·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본 책자의 저작권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있으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존의 증언, 융합의 여정

